



성찬례의 신학 : 희생제사

“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
말미암아 살 것이다”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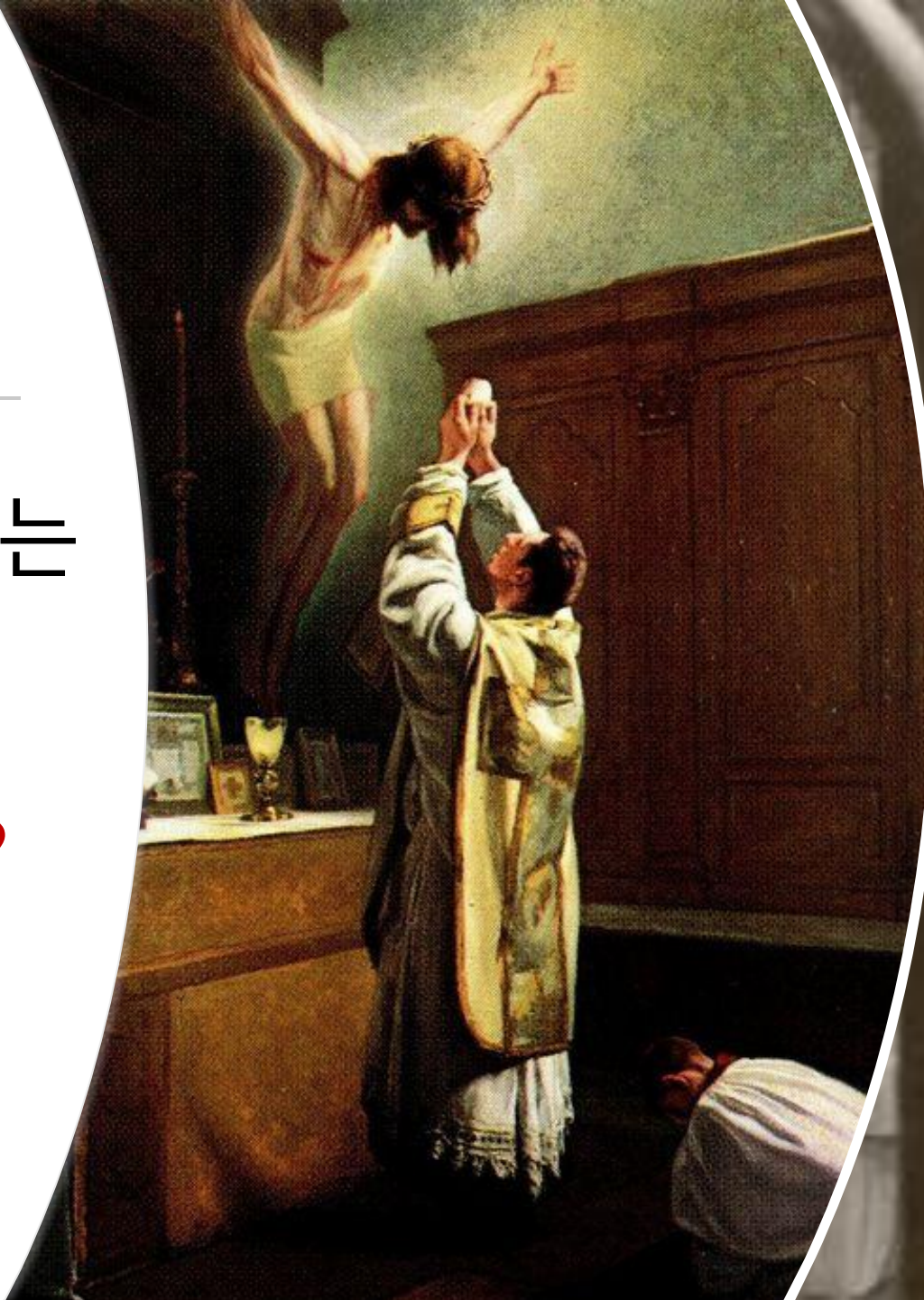
성찬례(성체성사)

- 최후 만찬의 기념 (“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”)
- 그리스도의 수난-죽음-부활의 신비 거행 (“너희를 위해 내어줄 몸,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해 흘릴 피”)

성찬례의 주요 의미는?

- 감사(기도) eucharistia
- 희생제사 sacrificium

성찬례 (미사)는
십자가의
“희생제사”?



성찬례는 제사가 아니라, 천상잔치를
표상하는 **주님의 식사**, **나눔의 잔치** 아닌가?



희생제사 =
“속죄” 또는
“호의” 얻기 위한
유혈제사...

하느님이 이러한 제사
예식을 원하실까...?





희생제사는 비그리스도교적?!

복음화를 위한 “행동”과 “실천”에
장애물 아닌가?

(삶의 변화 없이 제사만 드리면 /
예물만 바치면 다 해결?)



특히,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
희생제사와 연결시킬 경우...

오해와 왜곡의 가능성... 특히, **잘못된 하느님 상(像)**

-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, 속죄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잔혹한 하느님?
- **십자가 죽음**은: 분노하신 하느님이 정의를 이루기 위한 징벌 (“**거룩한 복수**”)로서 아들을 치신 것??





십자가 희생제사 = 아들 위로 떨어진 하느님의 분노와 복수?

“... 십자가에 달린 저 구원자는
당신의 엄격한 정의 자체가 준비하신
대상 [= 대속물] 입니다.

그러니 때리소서 주님! 이제
때리소서! 그 [예수]는 당신이
때리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
되었습니다...”

(부르달루 Bourdaloue, 그리스도의 수난에
대한 첫 설교, 17세기경)

—

“죄인들을 대신하여 바친,
성자의 찬미와 보속으로
마음을 푸시어, 주님의
자비를 간구하는 저희를
용서하소서”
(예수성심호칭기도)



그리스도의 성찬례가 “희생제사”라면, 어떤 의미에서? 구약의 희생제사로부터 출발해서 이해해보자...

- 구약의 희생제사 (유혈제사)
 - 속죄 제물
 - 보상 제물

• 번제물에 관한 규정 (레위 1,1-9)

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,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.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. ‘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는,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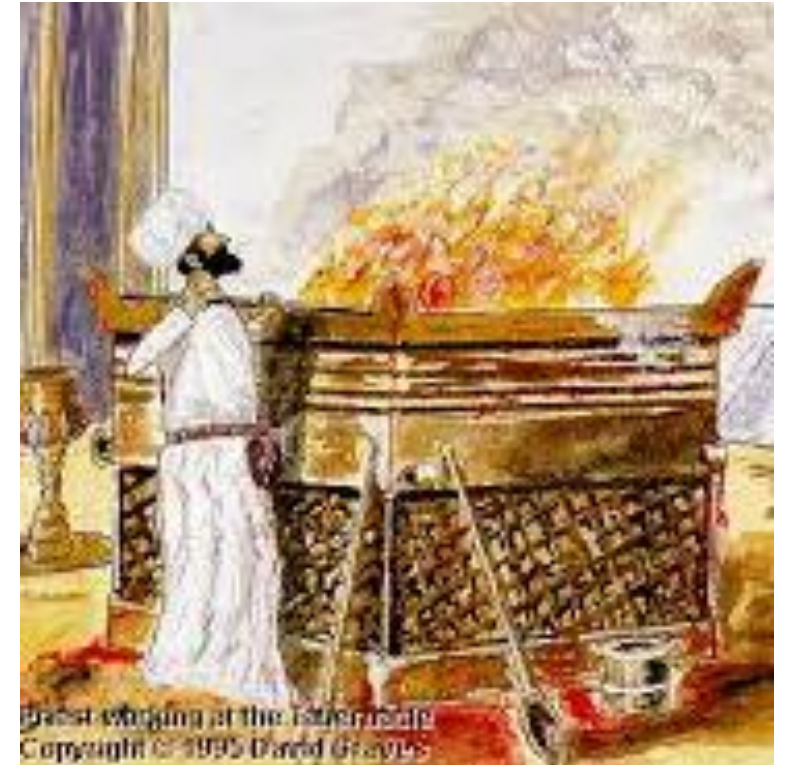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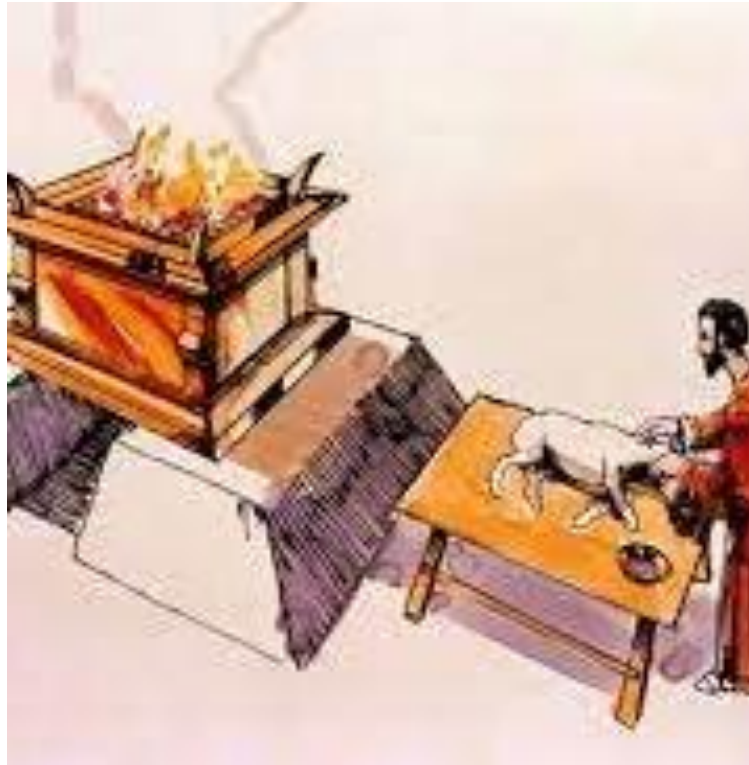
소 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,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. **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,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온 다음,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.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,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.**

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,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,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.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.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,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.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.

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,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,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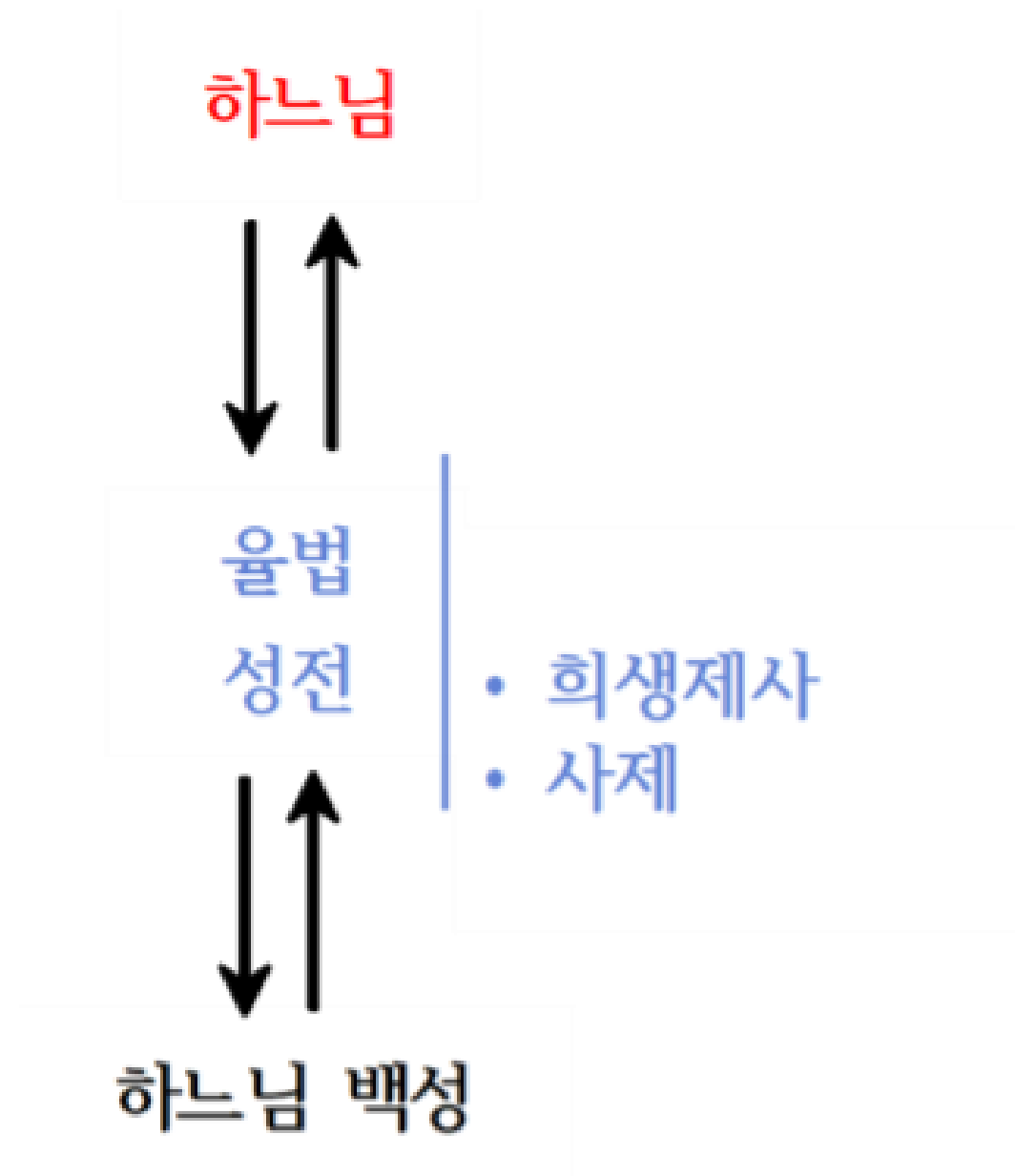
성전제사

- 성전제사는 율법과 함께 구약 시대에 신앙(하느님과 관계)를 지탱하는 **중심축**이었다.



제사(사제)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과 의 관계

- 제사(사제)의 중개를 통해, 율법준수라는 '업적'을 쌓음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'의로움'(속죄, 보상의 결과)을 획득해야 했다...
- 따라서, **희생제사는 하느님의 호의, 용서를 얻기 위한 (획득-소유하기 위한) 수단이자 도구...**



그렇다면, 유허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?

- 예수님의 태도는... 반(反)희생 제사!
-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허제사 체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시며, 이 체제를 전복시키신다.



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

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실 때,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성전에 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**유혈 제사를 정면으로 반대하셨음**이 드러난다.

- 샤를르 페로, 『예수와 역사』, 박상래 역, 가톨릭출판사, 2012(개정판), pp. 221-223

“그분은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” (마르코 복음서 11,16). [...] 여기서 말하는 ‘물건’이라는 낱말은 본래 그리스 말로는 ‘그릇’을 의미하는데 보통으로는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, 그러니까 제수나 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. [...] 결론적으로 예수는 제사 의식이 더 이상 속행되지 못하도록 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. 이렇게 놓고 보아야 우리는 비로소 이 사건에서 빚어진 흥분과 소요, 그리고 여기에 이어 올 중대한 결과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.

*** * * 예수님은 희생 제사를 반대하실 뿐 아니라, 형제애를 희생시키는 (뒷전으로 미뤄버리는) 정결례법과 전통 예법들 실천에 대해 비판하셨다**


그렇다면 , 성찬례는 **희생제사**인가 ?

• 성찬례 (미사) 는 ,

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 기념 .
곧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신비 거행

• 따라서 , **질문의 중심은** :

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‘희생(제사)’인가?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?



새로운 " 파스카 "
희생제사

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
= 새로운 " 파스카 사건 " (새로운 계약)



히브리인들 (구약)의 파스카

- **이집트로부터 탈출(해방) 사건**
이스라엘의 하느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을 형성시킨 결정적인 사건.
- **열 번째 재앙**
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의 만아들/
만배를 모조리 치심

• 탈출기 12,11 : “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”



1) “일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가운데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”



2) “그 피는 받아서,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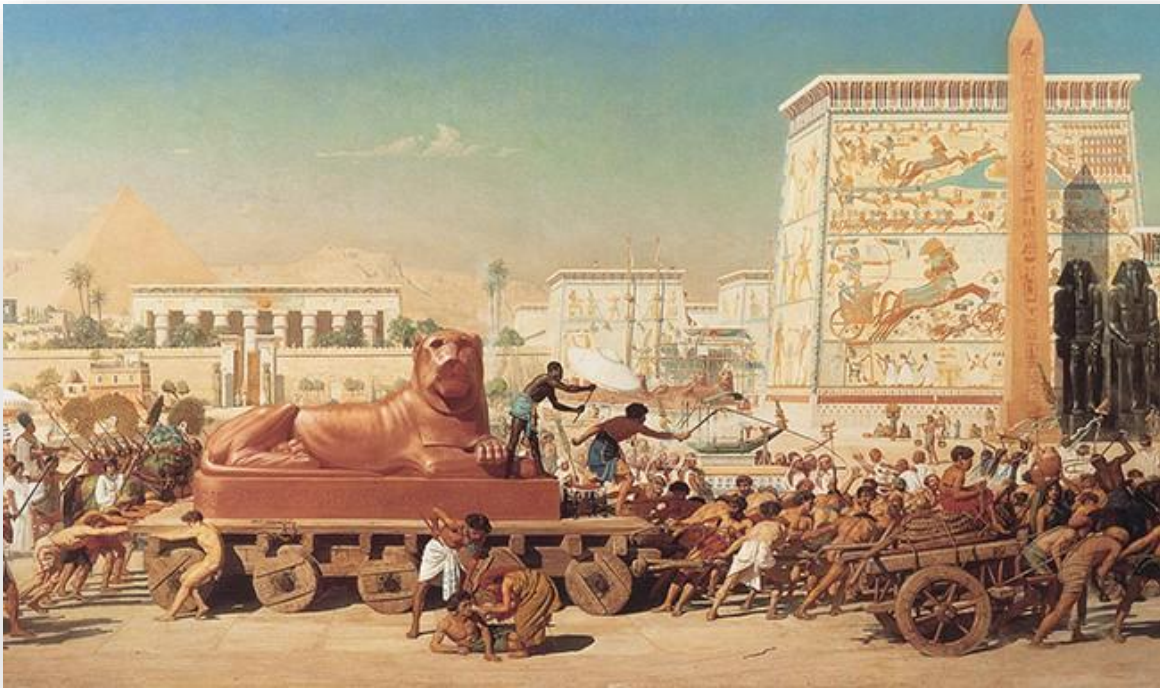
3) “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, 불에 구워,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”

탈출기 12, 12-14

“ ...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.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,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만아들과 말배를 모조리 치겠다.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. 나는 주님이
다.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. 내가 이집트를 칠 때,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**거르고 지나가겠다**.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.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,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.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”

- 한마디로, **구약의 파스카란**

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하느님께서 선물하신 자유로운 삶으로
“건너감” : 해방, 새로운 삶으로 변화



그리스도 (신약)의 파스카 :

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

- 죽음에서 하느님의
생명으로 **건너가심**
- 죄와 죽음의 힘
아래 있는 인간을
해방시키심





초대교회부터, 그리스도인은
십자가에서 수난하신 그리스도를
"하느님의 어린양"으로 고백
(새로운 파스카 희생제물인 어린양 = 예수 그리스도)

십자가 죽음 :
인간의 죄악, 거짓과
폭력 앞에
" 희생양 (제물) " 이
되신 예수





하느님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의 거짓과 증오, 폭력 . . .
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시는가 . . . ?



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
제물이 되시다:

당신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**“실존적” 희생 제사**

이 봉헌 / 희생은 . . .

- 바로 온 인류를 품으시고
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
순종하여 **자신을 다 내어주는**
사랑





이 사랑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

-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자비와 용서의 힘
-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해 악의 세력에게 복수하지 않으셨다. 아버지 뜻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시기까지 **순종**, 자신을 **봉헌**하셨다….
- 여기에 놀라움이 있다. **예수님의 무고하고 고결한 죽음 안에서 - 용서하는 사랑의 힘 앞에서 - 역설적으로 악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. (선의 힘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버렸다)**



— 그리고
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은,

끝을 모르는
무한한 자기 증여(내어줌)



따라서 성찬례는...

십자가에서 이루어진

- 예수님의 **봉헌**과

- 우리를 위한 자기 증여
(=우리를 구원하는 사랑)를

기념하고 현재화



“받아 먹어라, 이는
너희를 위하여 내어줄
내 몸이다”

- 성찬례에서 예수님은 **당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다** = **곧 인격 전부, 존재 전체를 우리를 위해 주신다**
- **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내어줌**

예수님의 내어줌: 우리를 살게 하는 “원천”이 되신다

- “내가 줄 빵은 세상에
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”
- “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
말미암아 살 것이다”



1) 성찬례에 참여한다는 것은...

-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(=봉헌과 자기 증여)에 참여하는 것, 곧 그리스도의 봉헌과 내어줌에 나를 동화시키는 과정
- 교회 공동체와 함께 '나 자신' 을 봉헌 = “그리스도의 봉헌 안에서, 그분을 통하여!



빵과 포도주의 봉헌이 드러내는 의미

- 봉헌을 통해 받음 (=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받음)
- 받은 것(그리스도의 몸)이 되어감



2)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(모신다)는 것은...

- 그리스도의 몸(생명의 빵)을 ‘먹음’
- ‘먹다’ : 그리스어 *τρώγειν* (trôgein) - (곶)씹다, 음미하다
- 곶 말씀(십자가에서 드러난 말씀)에 “내적으로 동화되다”
-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동화됨

성찬례에 참여, 성체를 모심은...

- 그리스도의 몸 (은총, 현존)의 소유? 나를 위한 축적? 아니다
-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**내 실존 전체의 봉헌**
- 동화를 통해 **'말씀'에서 '행동'으로 이행**: 건너감, 우리의 **'파스카'**